

강한 바람

‘강한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해방되도록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강한 동풍을 말합니다(출 14:21). 본 글에서는 북한 주민을 독재자로부터 해방해 주실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며, 동시에 우리의 자아에서 분출되는 잘못된 욕망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2024년 5월 3일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구 동독특임관 겸직)이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북한 내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슈나이더 정무차관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을 볼 때 북한 정권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과 함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상에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필요한 생필품을 얻고 한국 드라마 등 외부 문화를 접하면서 서서히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최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고, 선전 부문 강습회와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상통제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 즉 북한이 행한 일련의 조치가 북한 내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창 1:2)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북한 땅 위에서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북한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북한 땅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더욱 불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호 장관은 현재의 남북한을 “진리의 빛을 찾아가는 측(남한)과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정권(북한)의 대립과 대결”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회는 어두운 북한 땅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역은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북한선교의 역사일 것입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홍해를 건너도록 강한 바람을 일으키신 주님의 역사가 억압에 눌려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불어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2.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해 분출하는 악한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잠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3.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옛 자아가 물러나며 새 자아가 창조되어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통일소망선교회>

통일소망선교회는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초교파 선교단체로 지금까지 약 1,500명의 탈북민을 중국과 동남아에서 구출하였고, 국내외에서 탈북민 양육, 공휴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중국과 제3국에서 신분도 없이 숨어 지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안전한 처소로 인도받고 보호받게 하옵소서. 현장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중국 내 인신매매로 팔려 간 중국 평강공주들이 절망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네시모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잘 양육받게 하옵소서.
3.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서상륜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북한 내지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재중동포, 고려인 사역자들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헌신된 선교사들을 세워주옵소서.

말씀 나눔

본문: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나타난 홍해 기적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여러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연 현상마저도 하나님의 뜻

과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적은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강한 바람으로 가르신 하나님은 북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출애굽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북한 동포들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과 주권, 하나님의 ‘강한 바람’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영이 애굽 왕 바로가 포위한 그 영토로부터 약속의 땅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강한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셨고,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5월에 성령강림주일을 지킵니다. 이 5월에 성령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그 속박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북한 땅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합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 유일사상으로 세뇌된 북한 주민들의 내면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정신을 복음으로 대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동포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북한 동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어두운 북한 땅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체사상의 자아를 해체하시는 것이며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속박에 저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박하는 견고한 진인 북한의 체제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분단국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처럼 북녘땅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적 관점

신학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사람의 자아 가운데 화산재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잔인한 욕망”이 분출하고 있는 사실과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그것을 가라앉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욕망의 작동이 악을 행하는 자와 악에게 당하는 자 모두에게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잔인한 침략자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동기는 자기방어와 정의였다. 그러나 타자 안에 있던 짐승이 그들 안에 있던 짐승을 격노하게 했다. 그것을 제어하던 도덕적 장벽이 무너지자 이 짐승은 복수에 나섰다. 악에 저항하면서 그들은 악이 놓은 덫에 걸렸다.”¹⁾ 이 말은 잔인한 침략자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자기방어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었지만, 결국 침략자에게 있던 잔인한 욕망이 침략당한 자의 마음 안에서 잔인한 욕망으로 깨어나 분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 대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132-133.

해서 복수와 재복수가 끊임없이 잔인하게 이루어져 양자의 마음과 땅이 모두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25 사변은 남한을 향한 북한의 도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잔인한 침략자”입니다. 북한의 공격에 남한은 안보를 강화하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70년이 넘어갔습니다. 볼프의 신학을 근거로 보면, “타자 안에 있던 짐승이 그들(자신들) 안에 있던 짐승을 격노”하게 만든 것처럼 북한의 사악함이 남한을 사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사악한 말과 행동이 남한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무언가를 불타오르게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화구에서 나온 화산재처럼 그것이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모두에게 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볼프는 이 말씀에서 권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권세가 단순히 인간이 만든 제도나 구조도 아니고 어떤 천사(나 악마)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것은 제도적인 동시에 영적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왜곡된 제도와 구조, 체제의 내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볼프는 권세가 “사람을 지배하고 움아매고 그들로 하여금 타자를 지배하도록 유혹하는 악의 초인격적이며 제도적인 복합적 실체”라고 주장합니다.²⁾ 악의 힘은 제도 안에서도 영 안에서도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상대에 대해서 화산재를 분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개인의 영을 지배하기도 하고 제도 안에서 악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순전한 역사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분출되듯이 남북한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의 강한 바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은 서로 충을 겨누고 있는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형성된 자아와 제도 안에 교묘히 파고들어 온 악의 힘에 맞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여 있을 악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남북한이 복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위의 책, 133-134.